



대상포진 치료제

요약

대상포진 치료제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과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말하며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통증과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연고, 진통제 크림 등이 대상포진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외국어 표기

herpes zoster treatment agent(영어)
帶狀疱疹 治療劑(한자)

동의어: 대상포진약, 帶狀疱疹藥, drug for herpes zoster, drug for shingles

유의어·관련어: 항바이러스제, antiviral agent, 수두치료제, 垂頭治療劑

대상포진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erpes Zoster Virus, VZV)는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신경절에 오랜 기간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4~5일 전부터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 이후 몸통의 한쪽에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의 물집을 형성한다(물집 없이 통증만 있을 수 있다).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며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7~14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통증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이라고 한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은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허가되어 있으며 과거 대상포진에 걸린 유무와 상관없이 1회 접종한다.

* 수두(chicken pox): 수두대상포진(varicella-zoster virus)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빨간 물집과 가려움증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전염성이 높으며 한번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이 생긴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약물로 쓰이는 부신피질호르몬 제제. 부신피질호르몬은 부신(신장의 위쪽에 있는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이드라고도 일컫는다. 부신피질호르몬은 지방·단백질의 대사, 면역반응 조절, 염증반응 조절, 그리고 염분·수분 평형의 조절을 담당한다.

약리작용

대상포진 치료제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과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말하며 그 외에도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와 연고, 진통제 크림 등이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바이러스의 합성을 막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항바이러스제는 피부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통증과 피부 발진 치료 기간을 줄일 뿐 아니라 대상포진 후 통증의 발생 빈도와 통증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대상포진의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고, 진통제 연고 등이 사용되며 안(눈)대상포진에서는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함께 사용한다. 또한 신경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타민 B12인 히드록소코발라민이나 천연 캡사이신 크림이 사용되는데, 히드록소코발라민은 신경세포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여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천연 캡사이신은 말초감각신경세포의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효능·효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증 등의 증상 완화에 사용한다.

종류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비르, 팜시클로비르, 이노시플렉스 등의 약물이 있다. 경구약(정제, 건조시럽, 현탁액)과 정맥주사가 대상포진 치료제로 사용되며, 연고나 크림은 대상포진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 아시클로버의

경우 경구용 제품은 대상포진 뿐 아니라 생식기나 피부의 단순포진과 2세 이상 소아의 수두에도 사용하고, 국소에 바르는 크림 제품은 단순포진에만 사용한다. 발라시클로비르와 팜시클로비르는 아시클로버의 전구물질*로서 효과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아시클로버는 1일 5회 복용하는데 비해 발라시클로비르와 팜시클로비르는 1일 3회 복용한다.

* 전구물질: 최종물질이 생성되기 이전 단계의 물질로 전구물질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최종물질이 된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를 병용할 수 있다.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는 대상포진에 사용이 허가되어있으며,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제 및 주사제와 텍사메타손 점안제는 안(눈)대상포진에 사용이 허가되어있다.

진통제

대상포진의 통증 완화를 위해 주로 바르는 크림이나 연고 형태가 사용되며 이부프로펜피코놀과 부펙사막 등의 약물이 사용된다.

기타

히드록소코발라민(비타민 B12) 주사와 천연 캡사이신 연고가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에 사용된다.

Table 1. 대상포진 치료제의 종류

종류	약물	제품 예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조비락스®
	발라시클로비르	발트렉스®
	팜시클로비르	팜비어®
	이노시플렉스	푸리노신®
부신피질호르몬제	트리암시놀론	트리암시놀론®
	히드로코르티손	솔루코테프®
	메틸프레드니솔론	메치론®
	텍사메타손	맥시텍스®

진통제	이부프로펜피코놀	뉴라킨®
	부펙사막	아토클리어®

부작용

- 항바이러스제는 신장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초조, 불안 등의 정신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항바이러스제는 구역,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과 발진, 홍반, 피부점막안증후군*, 혈액 검사치 이상, 간 기능 장애,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수분 저류, 심부정맥, 피로, 안압 상승, 혈전증, 당뇨, 주사 부위 조직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진통제 연고의 경우 일시적인 피부 자극감이나 작열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 SJS): 급성 중증 피부 점막 질환으로, 주로 약물 에 의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대개 홍반성의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 및 피부 박리가 일어나며 심한 전신 증상이나 내부 장기 침범이 동반되기도 한다. 체표면적의 10% 이하의 표피 박리가 일어난다.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7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7일간 사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 항바이러스제는 급성 신부전 등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탈수 증상의 예방과 신장 독성을 예방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 항바이러스제는 신장기능이 감소된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신장기능이 감소된 환자에게는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 항바이러스제는 초조, 환각, 혼돈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지력을 요구하는 기계 조작이나 운전 등을 주의해야 한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중 히드로코르티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텍사메타손은 안(눈)대상포진에 사용하며 대상포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부신피질호르몬제는 고혈압, 당뇨, 울혈성 심부전, 혈전증 등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장기 투여 시 부작용은 투여량, 투여 기간과 관련이 있으므로 최소 유효량을 되도록 단기간 투여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